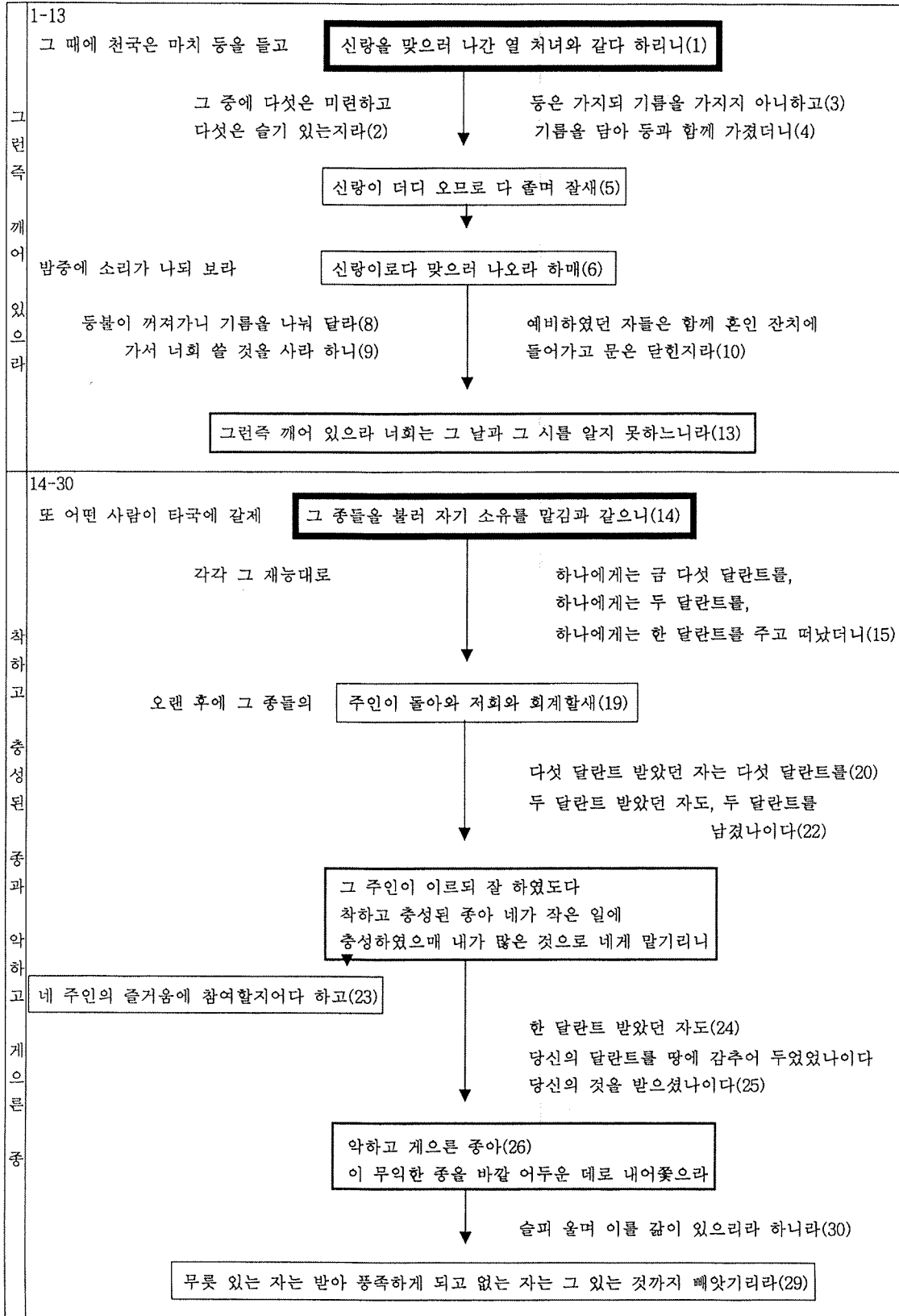


마태복음 25:1-30절 개관도표
 주제 : 열 처녀 비유와, 달란트 비유



마태복음 25:1-30절, 열 처녀 비유와, 달란트 비유

25장은 세 가지 비유(열 처녀, 달란트, 양과 염소)로 되어 있는데, 본 문단에서는 “열 처녀 비유와, 달란트 비유”를 다루게 됩니다. 이는 24장에서 종말론(24장)을 말씀하시는 중에 결론에 이르러,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이러므로 예비하고 있으라”(24:42, 44) 하셨는데, “깨어 있고, 예비하고 있음”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를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시는 문맥입니다. 그러므로 “열 처녀의 비유”를 말씀하시고는, “그런즉 깨어 있으라 그 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13)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깨어 있을 것을 최우선으로,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24:45), 즉 목회자에게 적용하시고는 “열 처녀의 비유”를 통해서 모든 성도들에게 적용을 시키시는 것입니다. “열 처녀”의 주제가 “예비하라”(10) 라면, 달란트 비유는 “충성하라”(21)가 될 것입니다. 이를 두 단원으로 나누어 상고하겠습니다.

첫째 단원(1-13) 그런즉 깨어 있으라

둘째 단원(14-30) 착하고 충성된 종과 무익한 종

첫째 단원(1-13) 그런즉 깨어 있으라

“그 때에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1).

① 본론으로 직행하기 전에, 이 비유를 말씀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아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주님의 의도하신 바와는 다른 해석이 가해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고전 2:16) 한 점은, 말씀을 상고하는 자에게 있어서는 언제나 염두에 두어야 할 말씀입니다. 첫째로,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신다는 것을 역설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이를 위해서만 “열 처녀의 비유나, 달란트 비유”는 존재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24-25장에 주님의 재림이 몇 번이나 강조되었는가를 관찰해보십시오. 16번(24:3, 27, 30, 33, 37, 39, 42, 44, 46, 48, 50, 25:1, 6, 13, 19, 31) 이상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정녕 옹하리라”(합 2:3)는 확신에 거하는 자에게만이 주님이 하시는 비유의 말씀이 유효한 것입니다.

② 둘째로, “그 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기”(24:36, 25:13) 때문에 이처럼 경계를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이 늦어지다 보면 웬만큼 경성 하던 사람도 느슨해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깨어 있으라, 예비하고 있으라” 하고 주의를 환기시키시는 것입니다. 셋째로, 만일 깨어 있지 않고, 예비하고 있지 않는다면 어떤 종말에 이르게 되는가를 말씀하심으로 경종을 울리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비유의 중심주제는 주님이 우리를 맞으러 다시 오실 때까지 어떤 자세로 기다려야 하는가에 맞춰져 있는 것입니다.

③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십니다. “신랑”은 주님을 상징하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는 믿는 자들을 상징합니다.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고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3-4) 합니다. 주님은 이미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 잔치를 베푸 어떤 임금과 같으니”(22:2) 하고 “혼인 잔치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혼인 잔치 비유”(22:2)에서는 초점이 임금의 초청을 거절한데 맞춰져 있었으나, “열 처녀의 비유”에서는

“등은 가졌으니 기름을 가지지 않았다”는 형식적인 신앙에 맞춰져 있는 것입니다.

④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잤다”(5)는 것입니다. 이는 주님의 재림이 오랴 않을 것을 암시하고 있기 때문에, “졸며 잤다”는 데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6) 했다는 것입니다. 늦기는 하였고, 그리하여 오래 기다렸고, 심지어 졸기까지 했으나 기다리던 신랑이 온 것입니다. 문제는 기다리는 동안이 아니라 신랑이 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여기에 비유의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입니다. 미련한 자들의 등불이 꺼져갔기 때문입니다.

⑤ “예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 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10) 합니다. 주님이 이 비유를 말씀하시는 동기는 혼인 잔치에 들어간 “슬기 있는 자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미련한 자들” 때문입니다. 달란트 비유에서도 “충성된 종”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게으르고 악한 종”에게 맞춰져 있습니다. 왜 그러한가?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가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11-12) 하는 일이 일어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토록 오랫동안 신랑을 기다렸으면서도 결정적인 순간에 들어가지 못하는 광경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라는 경계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주님은 교회 안과, 밖을 대조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자들 중에 이처럼 갈라지는 일이 일어나게 될 것에 대한 경고인 것입니다. 계속되는 “달란트 비유, 양과 염소의 비유”도 동일하게 교회 내에서 벌어질 일입니다.

교회 내에서 일어날 일

① 그렇다면 미련한 자들이 준비하지 못한 “기름”이 무엇인가에 관심이 집중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를 단도직입적으로 “성령”으로 말하는 것을 조심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한다면 주님의 의도와는 달리, “당신 성령 받았느냐? 받은 증거가 있느냐” 하는 식의 신비주의적인 체험을 강조하는 엉뚱한 방향으로 곡해될 염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복음에 대한 “믿음, 은혜”로 봄이 안전합니다. 그리스도의 구속, 즉 죽으시고 다시 사심을 믿는 자라면 그는 성령을 받은 자요, 은혜를 입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고후 4:7) 하고 복음을 질그릇에 가진 보배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② “등은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30)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의중(意中)에는,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는 서기관, 바리새인들을 생각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종교 의식(儀式)과 형식(形式)은 가장 잘 지키노라 자부하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일이 교회시대에도 있을 것을 경계하시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라오디게아교회를 보십시오. 부자교회로 자부했으나 주님을 모시지 못한 체 문밖으로 추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등은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않은 형식적인 믿음인 것입니다. 미련한 다섯 처녀는 실상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③ 이점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12) 하신 말씀에서 드러납니다. 어떻게 하면 바른 믿음을 가질 수가 있는가? 이런 비참한 결과를 초래하지 않을 수가 있는가? 모든 성도들이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될 수가 있는가? 이는 먼저 말씀하신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의 비유”(24:45)와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 줄 자가 누구뇨”, 그렇게만 한다면 성도들은 슬기 있는 다섯 처녀와 같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을 전해주어야만 한다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

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엡 1:12) 하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종도, 그리고 성도들도 “깨어 있고, 예비하는” 것입니다. 형식적인 종교만 유지해오던 유대인들이 그리스도가 오셨으나 영접하지 못함과 같이, “복음”이 사라진 형식만이 남은 교회는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내가 너를 알지 못하노라”는 말씀을 듣게 될 것입니다.

둘째 단원(14-30) 착하고 충성된 종과, 무익한 종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제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14).

① 25장에서 말씀하신 세 가지 비유의 모티프는 참으로 절묘한 바가 있습니다. “열 처녀의 비유”가 주님을 기다리는 기본적인 “예비”를 나타내고 있다면, “달란트 비유”는 주님을 기다리는 동안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하는 청지기의 “충성”을 나타내고, 마지막 “양과 염소의 비유”는 제목이 말해주듯이 주님이 오셔서 시행하게 될 영원한 “심판”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② 달란트 비유에는 확고한 골격(骨格)이 있습니다. 첫째로, ㉠ “타국에 갈제” 하십니다. 이 말씀 속에는 주님의 죽으실 것과, 다시 살아나실 것과, 승천하셔서 영광의 우편에 앉으시게 될 것이 함축이 되어 있습니다. 둘째는, ㉡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19) 하십니다. 주님은 분명히 다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셋째는, ㉢ “바로 가서 장사하여”(16) 합니다. 이는 주님의 승천으로부터 재림하시기까지 성도들의 섬김의 삶을 나타냅니다. 넷째는, ㉣ “저희와 회계(會計)할새”(19하) 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즉 결산의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섯째는, ㉤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될 자(21)와,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쫓길 자(30)로 갈라지게 된다는 골격입니다.

③ “각각 그 재능대로 하나에게는 금 다섯 달란트를, 하나에게는 두 달란트를, 하나에게는 한 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15) 합니다. 이 비유를 다룰 때도 “달란트”를 은사로 보고, 다섯, 둘, 하나를 강조하는 일을 조심해야만 합니다. 이렇게 하면 어떤 부작용이 있게 되는가?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고전 12:15) 하는 자기 비하(卑下)와, 반대로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고전 12:21) 하는 자고(自高)하는 일이 일어나 “몸 가운데 분쟁”이 일어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는 주님의 원하시는 바는 아닐 것입니다.

④ 그러므로 달란트를 은사로 국한시킬 것이 아니라, 내 모습 그대로, 내 형편 그대로가 주님이 내게 맡기신 주의 소유요, 나는 이를 관리하는 청지기라는 각성이 중요한 것입니다. 14 절을 보십시오.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다” 하십니다. 은사만이 주의 소유는 아닙니다. 나중에 보게 되겠습니다만 다섯 달란트로 다섯 달란트를 남긴 자나, 두 달란트로 두 달란트를 남긴 자나 글자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은 칭찬과 축복이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향하신 주님의 기대하심입니다. 그런데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어떤 성도는 우월감에 빠지게 하고, 다른 성도는 자학하게 만들어서야 되겠습니까?

⑤ 달란트 비유에서도 경계의 초점은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둔, 게으르고 악한 종”에게 맞춰져 있습니다. 이는 그가 예뻐서가 아니라 이렇게 되지 않게 하시려는 주님의 염려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째서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장사를 하지 않았는가? 무엇이 잘못되어 있는가? 이 점을 주님은 그의 입을 통해서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한 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데서 거두고 헤치지 않은데서 모으

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24) 합니다. 그가 헌신을 하지 않은 것은 주인에 대한 인식이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주인을, ㉠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합니다. ㉡ “심지 않은데서 거두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 그리하여 “두려워하여” 라고 말합니다.

게으르고 악한 종의 문제점

① 여기서 이 사람의 문제점이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것은 복음서의 두 기등과 같은 주제를 알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첫째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16:15) 하신, 주님이 누구인가를 물렸고, 둘째는, “인자의 온 것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20:28) 하신 주님이 오신 목적, 즉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루어주신 구속의 은총을 모르고 있다는 점입니다. 여기에 본질적인 원인이 있었던 것입니다.

②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여주신 그 분을 “엄한 사람”으로 인식하고, “한 알의 밀”로 오셔서 죽으심으로 많은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신 그 분을 “심지 않은 데서 거두는 분”으로 알고 있던 말인가? 한마디로 이 사람은 복음을 모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복음을 모르게 되면 무엇이냐 말하게 되는가?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25) 하고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율법적인 신관(神觀)이요, 윤리관입니다. 장사해서 이를 남겨도 내 것이 되지 않을 것이고, 만일 잃어버리게 된다면 벌을 받을 것이기에 “보소서 당신의 것을 받으셨나이다”(25하) 하는 것입니다. 잘한 것도 없지만, 잘못된 것도 없다는 태도입니다. 이것이 둘 비에 기록된 율법과, 마음에 기록된 새 언약의 차이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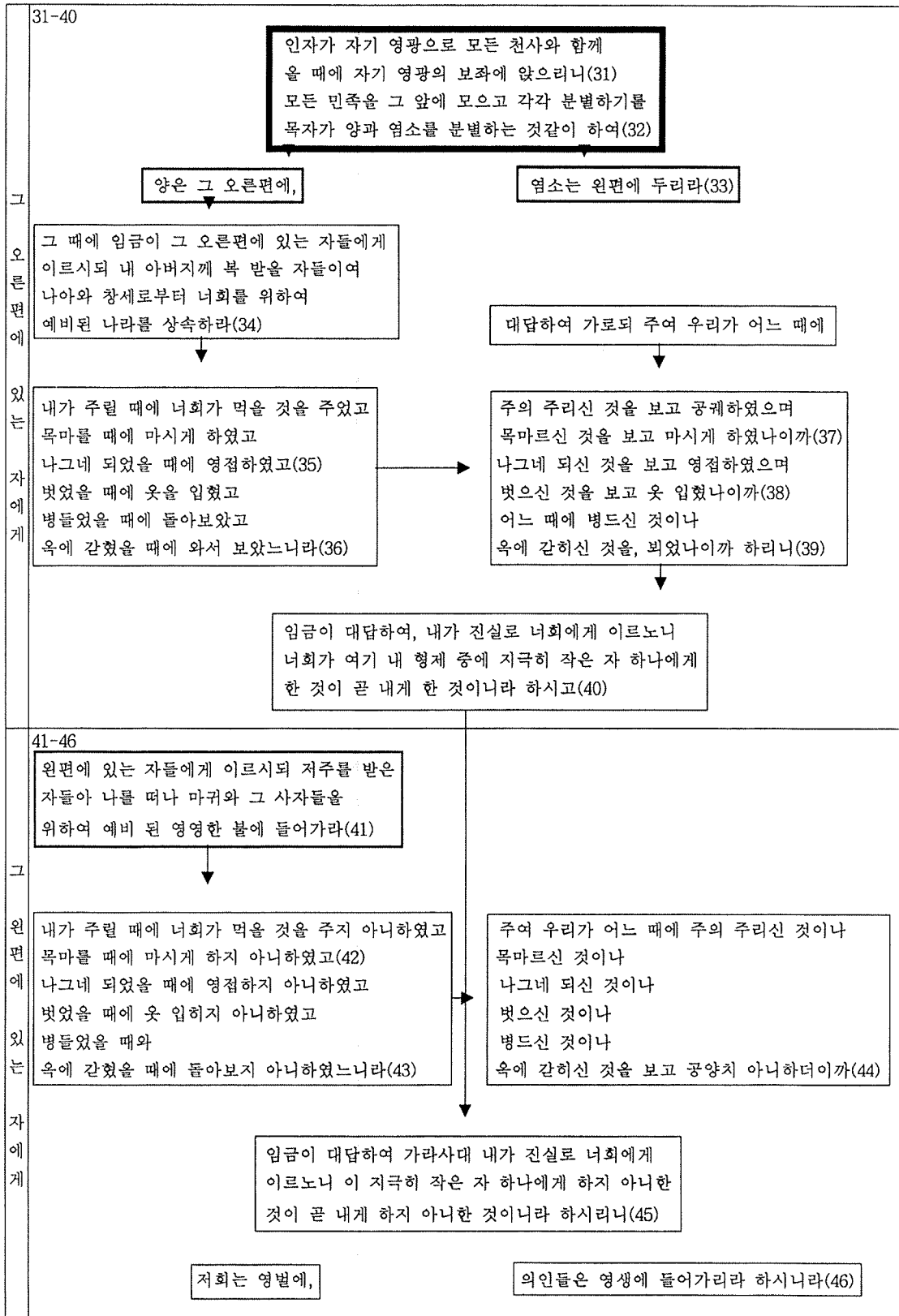
③ 그 주인이 대답하여 가로되 나를 그런 사람으로 “네가 알았느냐, 악하고 게으른 종아”(26) 하십니다. “악하다” 하심은 주인을 아주 나쁜 사람 취급을 하고 있기 때문이요, “게으르다” 한 것은, 이러저러한 구실을 대고 있지만 실은 일하기 싫어서임을 아셨기 때문일 것입니다. “취리하는 자들에게 두었다가, 본전과 번리를 받게 할 것”(27)이라 말씀함은 종의 타산적(打算的)인 말에 응하여 하신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심중에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생각하셨을 것입니다. 율법 하에 있는 자들은 하라는 만큼만 할 뿐 더하지 않습니다. 하면서도 감사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벌받을 것을 두려워하여, 마지못해 하는 것입니다.

④ 그런데 심각한 문제는 신약교회 안에도 이런 잘못된 신관과 윤리관 위에서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점입니다. 벌을 받을까보아 주일을 지키고, 백 배로 받기 위해서 십일조를 드리는 사람들은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에 대한 처방(處方)이 무엇인가? 복음서의 두 주제인 “예수가 누구인가? 왜 오셨는가”를 증거 해주는, 즉 복음입니다.

⑤ 달란트 비유는,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값이 있으리라”(30) 하고 끝을 맺고 있습니다. 결론은 이 사람이 교회 안에는 있었으나, 그리스도인이 아니었음이 드러납니다. 그는 “게으르고 악한 종”일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건설에 있어서는 “무익한 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가? 그는 무엇 때문에 이를 갈면서 분해하고 있는가? 복음을 전해주지 않은 설교자 때문이 아니기를 바랄 뿐입니다. 비록 한 달란트를 받았다 하여도 바로 가서 장사하는 형제가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착하고 충성된 종”입니다. 아멘.

마태복음 25:31-46절 개관도표

주제 : 영광으로 오셔서 모든 민족을 심판하리라



마태복음 25:31-46절, 영광으로 오셔서 모든 민족을 심판하시리라

요절 : 32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하여.

본 문단은 “양과 염소의 비유”로 알려져 있으나 비유의 말씀은,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 편에, 염소는 왼 편에 두리라”(32하-33) 하신 단 두 마디뿐이고, 나머지 말씀은 모두가 직설적(直說的)인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사회복음을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금과옥조(金科玉條)로 여기고 있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표면적으로만 본다면 사회구원을 주장하시는 양 여길 수가 있고, 영생이 마치 선행의 결과로 주어지는, 즉 행위구원을 말씀하는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성경을 단편적(斷片的)으로 보아 아전인수격(我田引水格)으로 해석하는 오류를, “산상설교”를 상고할 때도 경계한 바가 있습니다. 최우선적으로 이 말씀이 놓인 좌표를 생각해 보아야만 합니다. 주님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죽임을 당하고 사흘만에 다시 살아나실 것을 여러 번 예고하신 후에 드디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입니다. 이는 고난주간으로 접어들었음을 의미합니다. 다음 장에서 주님은 잡히시고 십자가에 달리시는 문맥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왜 이런 고난을 당하셔야만 하는가? “인자가 온 것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20:28)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는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34) 하나님의 구원계획입니다. 여기 어느 한 모퉁이라도 사회복음이나 행위 구원론이 끼어 들 여지가 있단 말인가? 그렇다면 이 말씀을 하시는 주님의 의중은 무엇인가? 이를 두 단원으로 나누어 상고하겠습니다.

첫째 단원(31-40)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둘째 단원(41-46)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첫째 단원(31-40)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31).

① 변함 없이 중심적인 주제는,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하신, 재림(再臨)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양과 염소의 비유”를 말씀하시는 의도가 주님의 승천으로부터 재림까지의 기간을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를 경계하심에 있기 때문입니다. 재림하시는 날에는 어떤 일이 있게 되는가?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같이 하여”(32) 하십니다. “분별”하는 일, 즉 심판 주로 오신다는 말씀입니다.

② “그 때에 임금이 그 오른 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 받을 자들이여 나아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34) 하십니다. 어찌하여 이런 복을 받게 되는가? “내가 주릴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35-36) 하십니다.

③ 이에 대한 바른 해석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확증(確證)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주님

은 “소자가 주릴 때에”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 “내가 주릴 때에”(35상) 라고 말씀하신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나”라는 이 분과, 오른 편에 있는 자들과는 어떤 관계인가 하는 점입니다. 우리는 달란트 비유에서 악한 종의 문제가 주인과의 “관계성”이 잘못되었기 때문임을 보았습니다. 주님과 나와서의 관계성은 모든 일의 동기를 부여해줍니다. 그것은 “대속주(代贖主)와 종”의 관계인 것입니다. 18장의 표현대로 하면, 일만 달란트 빛진 것을 “탕감”(18:27)해 주신 분이 라는 말씀입니다. ㉡ 이러한 망극한 사랑과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오른 편에 있는 자들은 “동관”, 즉 형제들에게 그런 사랑을 베풀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 그렇다면 “오른 편에 있는 자들”이 누구들인가는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구속의 은총을 입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이에 의인이 대답하여 가로되”(37) 하고, “의인”이라 부르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13:43절에서도 “그 때에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하셨습니다. 이는 행위로 된 의로움이 아닌 것입니다.

㉣ 그렇다면 주님께서 어찌하여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40) 말씀하시는가? 다시 말하면 “나”라고 하는 분과, “지극히 작은 자”는 어떤 관계인가 하는 점입니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교회를 핍박하는 바울에게 주님께서,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행 9:4) 하신 말씀을 생각해보면 됩니다. 이는 사회복음이 아니라, 주님은 머리오, 교회는 그의 몸이라는, 다시 말하면 피로 값을 주고 사신 주의 것이 라는 복음진리에 입각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지극히 작은 자”, 그는 다름이 아니라 주님의 몸 된 교회의 지체였던 것입니다.

㉤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주님에게 한 것일 뿐만이 아니라, 그것이 곧 자기에게 한 것이라는 깨달음입니다. 왜냐하면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즐거워하니”(고전 12:26) 하신 “사랑의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 부활하신 주님은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물으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어린양을 먹이라”(요 21:15) 하십니다. 떠나셔야 하는 주님의 관심은 온통 두고 가시는 “어린양, 소자”에게 있으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문의 말씀이 이웃 사랑을 포함하고 있지만, 주님의 의도는 두고 가시는 교회가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셔서 하시는 말씀임을 인식해야만 합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줄 알리라”(요 13:35) 하십니다.

㉦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주리신 것을 보고 공케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뉘었나이까”(37-39) 하고 깜짝 놀라워합니다. 그들은 사랑을 실천했으면서도 “언제 그렇게 하였나이까” 하고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른손의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6:3) 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바로 8복의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40) 하십니다.

둘째 단원(41-46) 원편에 있는 자들에게

“또 원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

하여 예비 된 영영한 불어 들어가라”(41).

① 본 비유의 명제(命題)는,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같이 하여 양은 오른 편에 염소는 왼 편에 두리라”(32-33) 하신 “나누임”에 있음을 놓치지 말아야만 합니다. 이런 분리가 지구촌 안에서 일어날 것이지만, 주님께서 경계하시는 의도는 교회 안에서도 일어날 일에 맞춰져 있음을 명심해야만 합니다. 주님께서 영광의 천사들과 함께 오시기 전까지는 그들은 한 울타리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분이 오시자 분리(分離)되는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②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하신 말씀은, 오른 편에 있는 자에게 하신 말씀의 정반대입니다.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라”(45) 하십니다. 그렇다면 주님과 왼편에 있는 자와는 어떤 관계인가는 자명해지는 것입니다. 그들은 주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자, 즉 비 그리스도인들이었던 것입니다. 이점을 “달란트 비유”에서도 본 바입니다.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24) 하고 말합니다. 주님에게 이렇게 말하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가 있단 말인가? 8:29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하고 말함을 듣게 됩니다. 누가 이렇게 말을 했는가? 귀신들린 자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 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41) 하시는 것입니다.

③ 그리하여 총 결론은 무엇인가? “저희는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46) 하고, 영원한 분리가 있게 되리라는 말씀입니다. 무슨 자격이 있어서 “영생”에 들어가게 됩니까? 소자에게 먹을 것을 준 공로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의인”들, 즉 의롭다함을 입은 자들이기 때문에, 의로우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함이 가능하여 지는 것입니다. 의인들은 주님께 받은 사랑을 나눴을 뿐입니다. 그렇다면 왼편에 있는 자들은 어찌하여 영벌에 처해지게 됩니까? 소자에게 먹을 것을 주지 않았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받은 것도 없고, 나눠준 것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중심적인 삶을 산 사람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삶을 살수는 없습니다. 그들은 값없이 거저 주시는 복음을 듣지도 받지 못한 사람들이라고 밖에는 달리는 설명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다할 것인가?